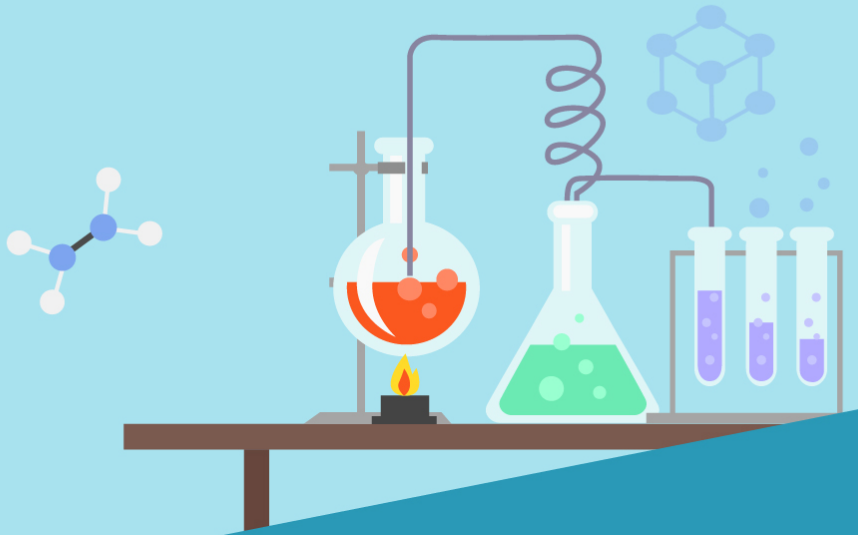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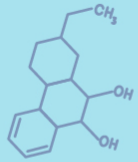
2020.1.31.

질병관리본부
KCD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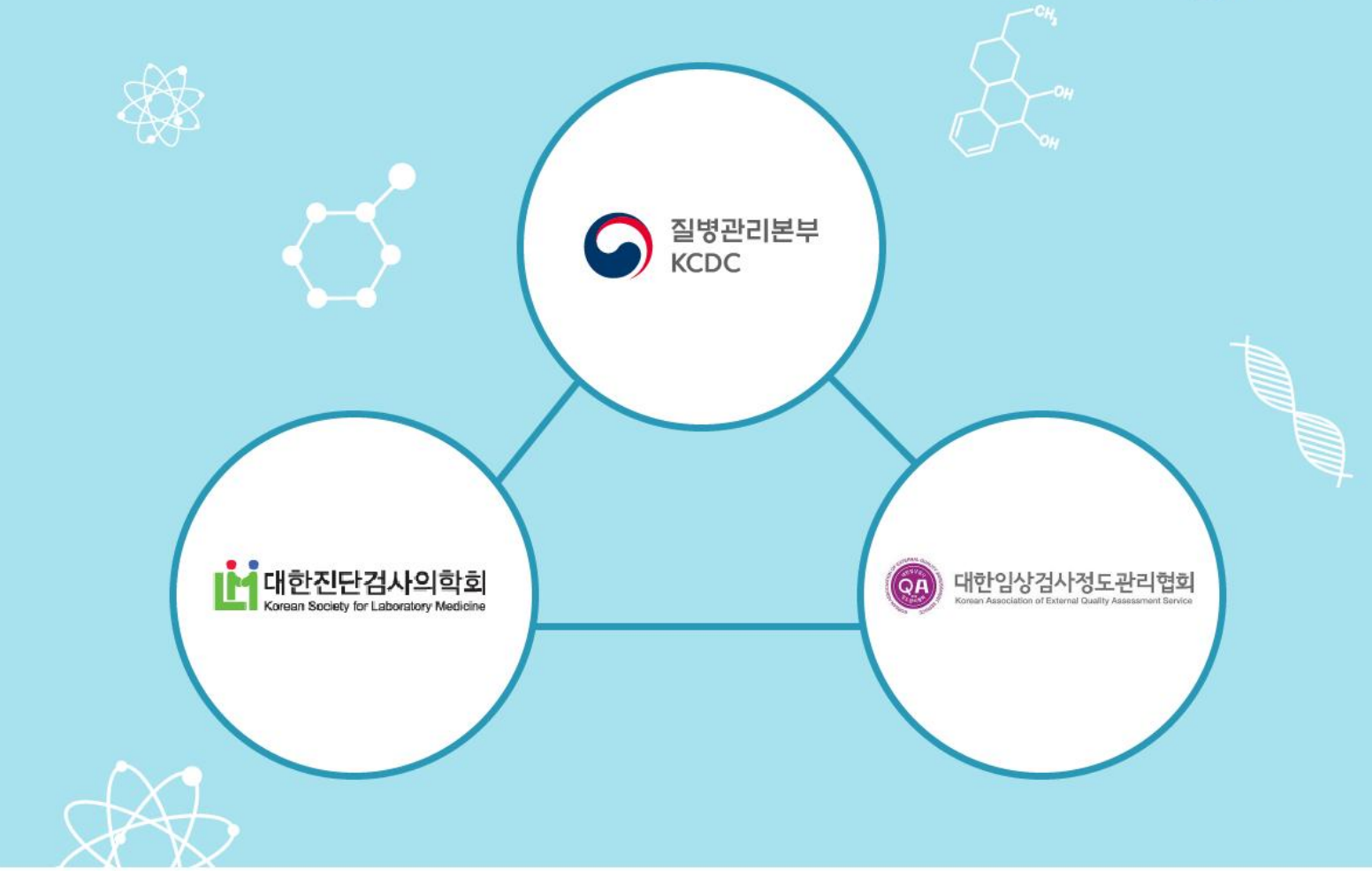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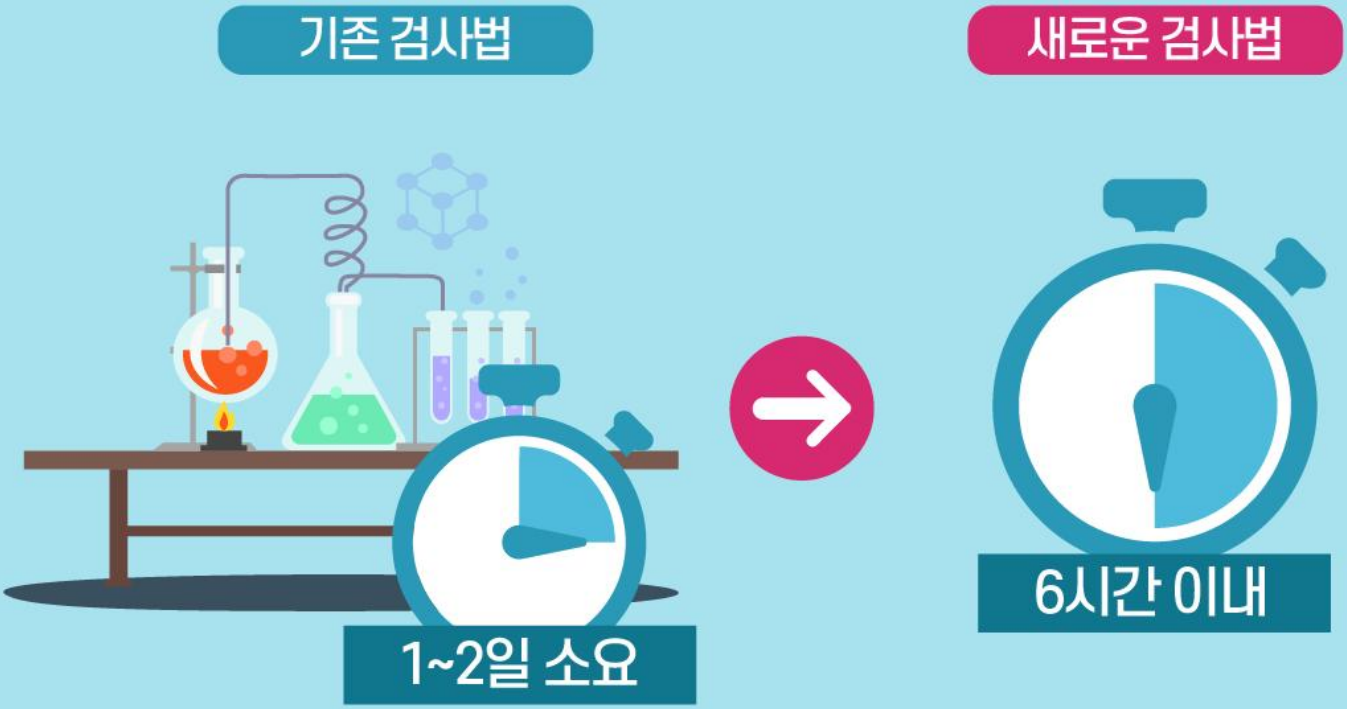
민관 협력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새로운 검사법 구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을 위해
검사속도와 편의성이 향상된
'실시간유전자 증폭검사*'가
1월 31일부터 전국 18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됩니다.

실시간유전자 증폭검사(Real Time RT-PCR)
검사속도와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고, 6시간 이내 결과 확인 가능
1회 검사로 확진이 가능



실시간유전자 증폭검사는 질병관리본부가
검사법을 구축하고,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와 함께
검증·평가 완료한 민관협력의 좋은 사례인데요!



그간 시행하던 판코로나 검사법은
1일~2일이 소요되었고 2단계 검사로 **이루어진 반면,**

새로운 검사법은 6시간 이내 결과 확인과
단 1회 검사로도 확진이 가능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적극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중국을 제외하고 세계적으로 허가된 상용
진단시약이 없으나(1.30. 기준) 국내 제조업체의 자체 연구와
질병관리본부·학회·협회의 평가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긴급사용승인 등을 통해
빠르면 **2월 초 민간의료기관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새로운 검사법 개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상황이 오더라도
많은 검사가 가능해 감염 여부에 따른
적극적인 방역 활동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유전자 증폭 검사로

빠른 진단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